

지역경제 먹구름 속 경기 침체 장기화

경제 현안 조사서 올해 실적미달 기업 절반 이상 차지

최근 전북의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의 구조조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계속된 내수침체 등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경기 침체 장기화를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상공회의소협의회가 110개 도내 기업을 대상,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에 참여한 총 110개의 업체 중 69개(62.7%)가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중장기적 우하향세'라고 평가했다. 또한, '일시적인 경기

부진'이라는 응답은 24.5%, '회복세 및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응답은 12.7%의 응답률에 그쳐 우리지역기업들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다소 부정적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중장기적 우하향세'라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주력산업 침체의 장기화(37.8%)',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32.2%), 대기업 중심의 경제 양극화(22.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 '저출산 및 고령화(3.3%)', '폐회적인 규제환경(2.2%)', '서비스산업의

부진(2.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경영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우리지역 기업들은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 응답이 57.3%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 '목표치 달성'이 39.1%, '목표치 초과 달성'은 3.6%로 나타났다.

경영 목표에 미달 이유로는 '내수시장 둔화(46.0%)', '고용환경 변화(21.0%)', '환율변동 가능성(11.0%)', '美·中통상분쟁' 등 '보호무역주의(4.0%)', '유가상승(4.0%)', '금리인상 기조(4.0%)', '기업관련 정부규제(3.0%)'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美·中' 간의 무역분쟁 중 우리지역 기업들은 영업과 매출의 손해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손해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이 전체 응답 기업의 79.1%를 차지, 나머지 20.9%의 기업들이 '美·中 통상분쟁으로 인해 영업과 매출에 손해를 보고있다'고 응답했다. '美·中 통상분쟁과 같은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수출시장 다변화 정책이 필요하다' 응답이 55.3%를 차지, 'R&D 강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가 필요'라는 응답이 27.2%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FTA, CPTPP 등과 같은 무역협정 체결이 필요하다'(11.4%)', '통상관련 모니터링 강화해야 한다(4.4%)'라는 등의 의견이 조사되었다.

또한, 3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기운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 기업들은 남북관계 및 대북재계가 개선된다면 '남북 경제협력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37.3%,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62.7%로 나타났다.

한편,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회장은 "최근 내수침체의 지속과 금리인상, '美·中 통상분쟁 심화, 원유가상승 등 우리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경제 회복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정책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전북 자매결연 23주년 기념행사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자매도회인 경북도회와 지난 11일과 12일 고창군에서 경북, 전북 '자매결연 제2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영 호남 전문건설인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유가상 고창군수를 비롯, 양도회 제임원과 회원사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은 "양도회가 다져온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영 호남 지역의 많은 회원사가 서로 협력, 전문건설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와 전북도회는 1995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양지역을 오가며 (교류, 협력)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지난 12일 전북농협에서 농가소득 증대 해법을 찾기 위한 전북 통합마케팅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했다.

농가소득 증대 '통합마케팅' 서 해법 찾는다

전북(도지사 송하진)과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12일 전북농협에서 농가소득 증대 해법을 찾기 위해 전북 통합마케팅 사업추진 전략회의를 했다.

전북 통합마케팅 사업실적은 9월말 현재 3,2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681억원 대비 19.4% 성장, 공동계산액은 1,310억원으로 전년 동기 1,150억원 대비 13.9% 성장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번 전략회의는 통합마케팅 사업성과가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방안과 2019년부터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전북 광역물류체계 구축사업을 통합마케팅 사업에 연계하여 농가 물류비 절감 뿐 아니라 농산물 제값받기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태 기자

또한, 전북 관내 통합마케팅 조직과 참여농협에 계통 출하하는 농산물의 GAP 인증 확대를 위해 시군 조합공동사업법인 임직원을 GAP 인증 심사원으로 육성, 공선출하회, 작목반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유재도 전북농협본부장은 "농업관련 정책은 결실을 맺기 너무나 어려웠으나,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을 통하여 어느 정도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며, "전북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 농산물 제값받기를 실현한다면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는 결코 넘지 못할 산이 아니다"며, "남은 기간 사업 마무리 및 내년도 신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김현권 의원 "농산물가공센터, 농진청 방치로 고철 전략"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건립된 전국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농진청 방치로 인해 농촌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농진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농진청이 설립을 지원한 농산물가공센터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전국적으로 44개가

설립된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 등을 점검해야 하는 농진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농민들이 센터의 기능을 몰라 각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이 시설이 고철로 전략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김 의원은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이 센터의 운영과 매출 등을 자료화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관리리를 요구했다. /뉴시스

고령농업인 어르신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

전북농협 '농업인 행복콜센터', 샷시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펼쳐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과 전주 완주시군지부(지부장 홍종기) 농촌현장지원단은 11일 외풍 추위로 인해 힘들어하는 덕진구 거주, 최모(76) 할머니에게 샷시를 설치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최모 할머니가 자신의 불편한 상황을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통해 (상담,접수) 전북 지역본부, 전주완주시군지부, 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 북전주농협(조합장 유한기)에서 지역 수리업체와 자원봉사자 등의 참여로 진행됐다.

유한기 북전주농협조합장은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통해 혼자 지내며 힘들어하는 어르신에게 지원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 고령농업인 어르신들에게 도



전북농협이 11일 외풍 추위로 인해 힘들어하는 덕진구 거주, 최모(76) 할머니에게 샷시를 설치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움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인행복콜센터'는 (사)농촌사랑법국민운동본부가 주관, 농협중앙회가 운영, 고령농업인 전용

콜센터로 전문상담사의 말벗서비스 등 정서적 위안과 함께 지역봉사단체와 연계한 각종 생활불편도 해소해 주는 맞춤형 종합복지서비스이다. /김영태 기자



'전국한우경진대회' 익산 장승원 씨 우수상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11~12일 안성캠핑장에서 진행된 2018년 전국한우경진대회에서 도내 지역 장승원 농가(익산시 웅포면 거주)가 번식암소 3부문의 우수상(전국 2위)을 수상, 표창과 시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대회는 각 시도에서 5개 부문(암송아지, 미경산우, 번식암소 1,2,3부) 1,2,3위로 선발된 암소 100여두가 출전, 우수 자질을 겨루고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로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